

## 04

# 자율주행시 실험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립니다!

차량의 자기인증 면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031-8045-2211

### 개선배경



- '17.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용 차량을 수입했으나, 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기술개발에 큰 애로가 있었던 기업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게 되었음
- 수입차량이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 \* 자기인증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동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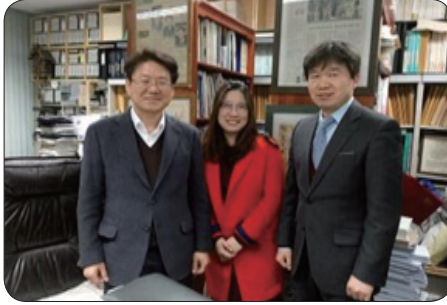


- 테스트용 수입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의 개선
- '18.12.18. 테스트용 수입차량 자기인증 면제 (규제 개선)
- '19. 6.21.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 득함 (최종 규제 개선)
- \* '19. 6.22. 서울·국토부·과기부 주관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참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 운행

### 〈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 ① '17.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선제적 과제 발굴
- ② 중앙부처 건의 10회 : 행안부(5회), 국조실(3회), 중기부(2회)
- ③ 기업·전문가·중앙부처 간담 및 심층인터뷰 12회
- ④ 과제의 보완 20회

- '17.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기업 간담을 통한 과제 발굴
- '17.11.16. 행안부 건의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제」 (1차 건의)
- '17.12. ~ '18. 3. 과제보완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 간담 3회



※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 인터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시 자기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스타트업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음.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연구개발시  
자기인증을 면제가 필요함.  
(2018. 3. 19. 대림대 자동차관)

- '18. 3.20. 행안부 건의 「지역 혁신성장 테마과제」 (2차 건의)
- '18. 4.27. 행안부 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3차 건의)
- '18. 5.31.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4차 건의)
- '18. 7. 국토교통부 불수용 의견 회신
- '18. 7.13. 국조실 건의 「투자대기 기업 규제개선 건의」 (5차 건의)
- '18. 7.25. 중앙부처 불수용 재협의를 위한 기업 간담
- '18. 8.30. 자동차부품연구원 ○○○ 박사 자문
- '18. 8.30. 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 ○○○ 연구원 자문
- '18. 9.4. 자동차 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
- '18. 9.4. 국조실 임택진 규제혁신기획관에게 건의 (6차 건의)
- '18. 9.5. 서울대 차세대융합연구소 ○○○박사 자문
- '18. 9.7. 재협의를 위한 안양시· 행안부· 경기도 합동 기업 간담
- ⇒ 과제를 변경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안부에 재건의 (7차 건의)



기업 현장 방문(행안부· 경기도· 안양시)



'18.9.7,14:10~16:30

- '18.10.15. 재협의를 위한 기업 간담
- '18.11.20. 행안부 건의 「재협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8차 건의)
- '18.11.21.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심지는 위원) 에 재건의 (9차 건의)
- '18.11.21.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재건의 (10차 건의)

## 개선효과



- 다양한 일반도로 테스트를 통한 자율주행 시 지능을 높이고 근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한 개발 본격화, 통신 등 150여개의 관련 산업군 성장 (세종 스마트시티 지선버스 자율주행 공유 운영 프로젝트에 참가)
- 기대효과 : 매출액 연 1,000억 이상, 투자금액 연 1,000억 이상, 일자리창출 연 300명
- 안양시 자율주행 도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마중물



테스팅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  
'19. 6. 22.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월드컵북로 1.1km 구간 운행



행사관계자와 기념 촬영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 내일신문

#### 5G자율주행버스 서울시내 달린다

하반기 상업용 운행 ... 22일 일반인 시승행사

2019-06-21 10:50:40 게재

22일 5G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5G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상암 DMC 지역을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모습. 사진 SK텔레콤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을 달리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11인승) KT(45인승) 연면드솔루션(6인승) 스프링클라우드(13인승)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연세대(레이) 국민대(스포티지) SWM(니로)가 자율주행승용차를 담당한다.

## "자율주행 모델 구축 등 안양시에 스마트 첨단도시 기반 형성하겠다"...최대호 안양시장

경기 / 사회 |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24, 수정일 : 2019-06-24

👍 좋아요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하기

👍 좋아요 0개 | 📄 Print | 📄 PDF | ✉ Email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 안양시,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부각

📅 전길현 기자 | 🕒 승인 2019.04.03 09:23

### | 안양시(쥬SWM·발렌스 3개 기관 대표 양해각서 교환해

[매일일보 전길현 기자]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에 안양시가 자율주행차량 선도 기관으로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어제께 최대호 안양시장, 김기혁(쥬SWM 대표, 알란 샤아리 Valencs Semiconductor Ltd(이하 발렌스) 부사장 등 3개 기관 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를 교환한 쥬SWM은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이다. 쥬SWM은 이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해 10월에 열린 한국전자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